



1945년 해방 이후 제주도는 미국 정부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주 민중들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미국 정부로부터 자주성을 지키고 완전한 독립을 강하게 열망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노동자, 청년들의 정치의식과 조직력이 남달랐습니다.

1947년 3·1 만세운동 기념식에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3월 10일 제주의 노동자 민중들은 △미군정의 탄압 중단 △경찰 폭력 처벌 △남한 단독선거 반대 △자주적인 통일국가 건설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에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 민중에게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수천 명을 체포, 고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투쟁을 조직합니다. 결국 제주 민중들은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를 결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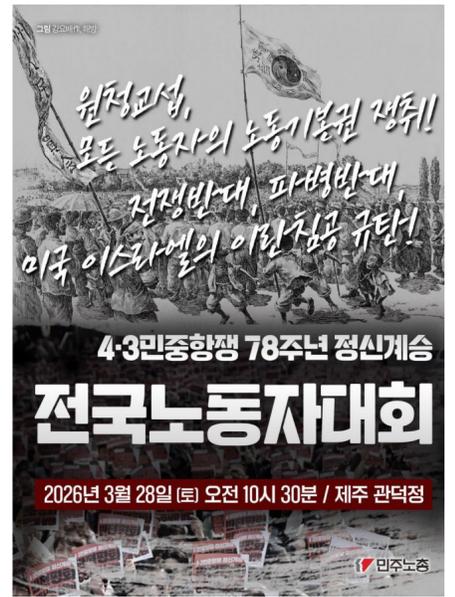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민 전체를 '좌익 세력'으로 규정하며, '빨갱이 사냥'(미 군정 보고서에서 언급된 용어)이라는 명분으로 제주 인구의 10%에 달하는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최근 공식 조사에 따르면 당시 진압 과정에서 약 1만 4천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1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 작전'을 실시합니다. 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소각되었고, 해안 마을에서는 대규모 처형도 자행되었습니다. 초토화 작전 5개월 동안 전체 희생자의 67%가 사망합니다.

제주 민중들의 저항은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도 계속되었으나, 결국 1954년 9월 한라산의 마지막 저항군이 진압되면서 7년만에 비극은 일단락됩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제주에서 일어난 일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의 기억과 기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비극의 현장을 보존하며, 후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1978년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과 1996년 조성봉 감독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통해 4·3 항쟁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됩니다.

오랫동안 4·3 항쟁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4·3 항쟁을 '좌익 폭동'으로 왜곡하고 비하하는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 3일이 다가오면 제주도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4·3 항쟁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해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와 과제를 외칩니다. 특히 올해 제주에서는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중동은 우리의 옛 제주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4·3 항쟁 정신은 "자주와 평화" 한국 정부는 파병 요청 거부하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땅에서 물러갔지만, 다시 미국 제국주의가 들어와 민중들이 자주성과 민주주의로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가로막았습니다. 미국은 조선 땅을 본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또다른 식민지로 만듭니다. 이에 저항하며 우리 민중 스스로 삶과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4·3항쟁의 정신입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주범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한 나라, 미국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무역전쟁을 선포하더니, 급기야 군사 침략전쟁까지 나아갔습니다. 미국은 한 나라의 정부를 무력으로 침몰시키고,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웁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식민지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과 민간인들이 제국주의 전쟁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다른 나라를 전쟁판에 끌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파병언급에 아무런 입장도 없이 모호한 자세를 취합니다. 한국 정부는 명분 없고 비도덕적인 범죄행위에 단호히 반대하고 파병요청을 거부해야 합니다.